

## EU, 증가세상당치 전환방식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부문 협상의 일환으로 파리에서 열렸던 지난 협상에서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파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30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농업 협상의 진전을 막고 있던 시장접근 분야의 기술적인 쟁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증가세 전환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EU는 이 자리에서 향후 구간별 관세감축의 기초가 되는 증가세 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s)를 산출하기 위한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전환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농업부문 협상은 더욱 열띤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있을 WTO 각료 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EU 농업·농촌 개발부 집행위원(EU 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ia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U가 새로 제안한 AVEs 전환 방식이 민감한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WTO 협상을 희망적으로 이끌고자하는 EU의 신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 이번 제안으로 통해서 농업부문 협상이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EU 농민들의 이해사항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U는 현재 농업부문 협상의 주요 세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더욱이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으로 말미암아 EU는 기타 협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접근(market access)뿐만 아니라 국내 지지(domestic support)와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 측면에서 EU는 주도

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A 농업부문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부분을 포함한 협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U는 농업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WTO 소규모각료회의는 Five Interested Parties<sup>1)</sup> 간의 농업부문 안건회의에 이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FIPs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AVEs 전환 방식에 합의하였다. 이는 차후 진행될 무역협상에서 관세감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U의 제안은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EU의 제안은 향후 협상 진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제안을 통해 시장접근분야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내보조와 수출 경쟁 분야에서도 협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KREI

---

1) 유럽연합, 미국, 호주, 브라질, 인도를 지칭한다.